

‘무안공항 대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

국토부 검역·세관·출입국 여부 검토 뒤 승인

올 하반기부터 중국·몽골·베트남 운항 계획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의 폐쇄로 인한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운항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추진배경과 항공기 운항노선, 운항일정, 운항규모, 항공기 기종 등 운항개요가 담겼다.

운항일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이며 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옌지(중국), 광주~장자제(중국) 등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능 시간은 국내선 운항시간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각 출발 1편, 도착 1편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을 요구하는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검역, 세관, 출입국 관리(CIQ) 등에 관한 협의 기간을 거쳐 항공안전 확보 가능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을 판단해 광주시에 국제선 임시운

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취항 허가 승인을 해주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 라인 등 시설 정비 후 항공사와 함께 국토부에 항공운항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신청서를 제출한 광주시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35m(2분)로 중형 기종을 활용한 동남아·하와이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지를 운항하는 정기편과 전세기 등이 착륙했으며 같은 해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넘겼다. 현재는 서울·제주 국내선이 하루 30여편 정도 운항하고 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당초 국토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해 내용에 따라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무안공항의 폐쇄기간이 7월까지 3개월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 찾은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차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아 최준영 기아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차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아 최준영 기아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 재연장되고 로드맵 발표도 지연될에 따라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장기 폐쇄로 인해 시민 불편과 지역 관광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긴밀

히 협의해 조속한 승인과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안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시설물과 외

벽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등 179명(광주·전남 157명)이 숨졌다.

또 무안공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일부 시설이 파손돼 7월까지 폐쇄 조치 됐다.

/김도기 기자

해남·영암·나주·여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전남도 “첨단에너지 다소비기업 유치 마중물 기대”

전남도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해남, 영암, 나주, 여수 등 4개 지역 조정계획이 주된 골자다.

인공지능(AI) 가속화와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력수요가 2022년 대비 2051년 2.5배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첨단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국가전력

망 신규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지역이다.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한전 이외에도 분산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 거래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규제특례가 가능해진다.

또 정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망 이용 요금, 기후환경 비용 등 각종 전기요금 부담비

용 등에 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어 분산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 이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분산에너지와 AI·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선도를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2대 목표로 정하고 3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수 입지 4곳을 선정했다.

4개 지역 모두 다양한 분산(재생)에너지 발전소를 ICT 기술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시스템(VPP)을 공통으로 운영한다.

/김 호 기자

“돌과 감염” 무안서 돼지구제역 추가 발생

3개 농장서 첫 구제역 발생 사흘 만에 10마리 추가 감염

무안에서 돼지 구제역이 첫 발생한 지 사흘 만에 3개 농장에서 돼지 10마리가 추가 감염됐다.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시기를 지나 이른바 ‘돌과 감염’된 사례들이어서 방역 당국이 살처분 확대와 백신 추가 접종을 고심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지역 방역대 3km 내 이동제한해제 검사 중 몽탄면과 삼향읍, 일로읍 등 양돈 농장 3곳에서 각각 1마리, 5마리, 4마리 등 총 10마리가 구제역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돼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농장에서는 각각 축사 6개동 1900마리, 9개동 3000마리, 8개동 3500마리 등 모두 23개 동에서 8400마리의 돼지를 사육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의 바이러스 검출량이 소에 비해 최소 1000배, 많게는 3000배 가량 많아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점을 감안해 전체 사육두수를 살처분할지, 감염돼지를 중심으로 부분 살처분할 지 고심하고 있다.

3개 농장 모두 감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달 15일 백신접종 후 항체양성률도 100% 가깝게 높아진 상태에서 감염됐다.

/김 호 기자

“의대 4학년생, 복귀기한 넘기면 국시 불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학적 준수 방침에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학과 4학년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모임인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MC는 “정치적 상황이 여려분에게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며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적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고 의대 학생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KAMC는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들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KAMC는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KAMC는 “4월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알렸다.

광주 희귀질환 의료비 확대	2면
韓 내주 관세협상 개시할듯	3면
한국 성장률 1.6% 전망	4면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 - 25.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